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3월16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현대화과업을 제시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각종 부속품을 가공하고있는 로동자들과 용접불꽃을 날리는 제관공들의 열의가 대단하다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이라면 사소한 주저와 동요가 없이 절대적으로 호응하고 결사관철하고야마는 우리 로동계급의 투쟁본때가 공장안에 차넘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1월18일기계종합공장에서 질좋은 기관들이 쾅쾅 생산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자동차생산과 련관된 부문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한것만큼 3월16일공장을 모체로 하여 현대적인 자동차공업을 창설할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3월16일공장을 현대화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나라의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하자고 하시면서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3월16일공장을 우리 나라 자동차산업의 중심으로 전변시키자는것이 당의 의도이라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들이 공장을 세계적수준의 자동차생산기지로 꾸릴 대담한 목표와 야심을 안고 달라붙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생산지휘와 기업관리의 정보화, 생산공정의 무인화,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하며 최첨단설비들을 비롯하여 자동차생산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그쯘히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책임있고 능력있는 일군들과 전문가들로 개건현대화상무를 조직하고 강력한 설계집단을 무어주는것과 함께 자동차공업의 특성에 맞게 협동품생산보장단위들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종업원들과 기술자들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하고 세계자동차공업발전추세를 알수 있게 과학기술보급실도 더 잘 꾸리며 공장로동계급을 위한 문화후생시설들을 훌륭히 건설해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나라의 자동차산업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하시면서 오늘의 결심이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합쳐 개건현대화를 본때있게 밀고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는 3월16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믿음을 항상 명심하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월16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불멸의 령도자욱을 새기시며 공장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대해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맡겨주신 전투임무를 결사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한없이 은혜로운 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길가의 가랑잎처럼 의지가지없이 떠돌아다니던 혁명가유자녀들을 한명한명 품들여 찾아내여 혁명학원이라는 은혜로운 삶의 터전에 뿌리내리도록 하여주신 그날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혁명가유자녀들에게 베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은정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하고있습니다.》

주체34(1945)년 10월 어느날이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서깊은 만경대에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을 건설하시려는 구상을 펼치시였다. 그때 한 로인이 마을사람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김형직선생님께서 학교를 세우려고 애쓰시던 이곳에 마을아이들을 공부시킬 중학교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인의 두손을 꼭 잡으시고 만경대에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혁명가들의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학교를 세우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동강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경치좋은 곳에 학원의 터전을 잡아주시였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모를 잃고 사방에서 헤매고있을 혁명가유자녀들을 찾아올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방을 현지지도하실 때나 어떤 지방에서 올라오는 일군들을 만나실 때면 의례히 그 지방에 있음직한 혁명렬사의 자녀들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그들을 찾아낼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또한 이국땅 어디에 있을 유자녀들을 찾기 위해 항일혁명투사들을 떠나보내시면서 어디에 가면 어느때 희생된 누구의 아들이 있을것이고 또 어느곳에는 어느 전투에서 전사한 누구누구의 자식들이 있을터이니 꼭 찾아서 데려오라고 몇번이고 당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도 혁명가유자녀들을 찾기 위해 무척 애를 쓰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각지로 떠나는 투사들을 일일이 만나시여 귀중히 간직해오신 수첩에 적혀있는 희생된 전우들의 이름과 고향,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과 생김새, 보호자의 주소들을 알려주시면서 한두번 찾아갔다가 없다고 되돌아서지 말고 한달이 지나도 좋고 두달이 걸려도 좋으니 이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기어이 찾아서 데려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주체36(1947)년 여름에 들어서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유자녀들이 평양으로 왔다. 유자녀들이 도착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날 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찾았다는 반가움과 함께 희생된 전사들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시였다.

다음날 유자녀들을 한품에 안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얼굴에서 옛 전사들의 모습을 되새기시며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살이며 아버지는 누구인가를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랜 시간 유자녀들과 함께 계시며 부모를 잃고 고생살이에 멍이 든 그들의 가슴에 친어버이의 뜨거운 사랑, 앞날에 대한 크나큰 희망과 포부를 안겨주시였다.

백두산장군들의 한없이 은혜로운 품에 안긴 그날부터 길가의 가랑잎처럼 의지가지없이 떠돌아다니던 혁명가유자녀들은 부모들의 뒤를 이어 해방조국의 믿음직한 기둥감들로 자라날수 있었다.

본사기자 김 일 권

주체혁명의 핵심골간으로 키우시던 나날에

학원건설자들에게 하신 호소

해방후 어느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학원건설장을 찾으시고 로동자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휴식시간이 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에게 건설자들을 다 모이게 하라고 이르시였다. 건설자들이 앞을 다투어 달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학원에서는 지난날 백두산일대에서 악독한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다가 희생된 혁명렬사의 유자녀들이 공부하게 된다고, 우리는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고, 그리하여 이 학원을 나온 유자녀들이 돌아간 부모들의 뜻을 계승하여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건설자들은 혁명가유자녀들을 돌보아주는 곳으로만 생각했던 이 학원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지닌 곳인지 깊이 깨닫게 되였다.

잠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왜 우리 민족이 수십년간 일제에게 억눌리어 살아왔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것은 바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인민을 투쟁에로 이끌어나가는 민족간부의 골간부대가 없었기때문이라고, 우리에게는 정치에서나 경제에서나 군사에서나 모든 면에서 골간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가 아직 어렵지만 학원건설만은 자재나 설비를 적극 보장하고있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이 학원을 제기일내에 빨리 건설하자고 강조하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열렬한 호소에 건설자들은 일제히 호응해나섰다.

유자녀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주체86(1997)년 1월 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신 이날은 류달리 많은 눈이 내렸다. 이날 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아끼고 사랑하신 원아들을 이번 설에는 어떻게 하든지 찾아가자고 오래전부터 벼르어왔다고 하시였다. 일군들이 이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실것을 말씀드리였지만 그이께서는 찾아가보아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학원으로 떠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게 된 원아들은 너무 기뻐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줄 몰라하였다. 한 원아가 위대한 장군님께 붉은넥타이를 매여드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이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등을 쓰다듬어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고여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원아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이날 그이께서는 기념사진촬영장에 서있는 원아들을 보시면서 일군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춥겠다고, 귀중한 애들이 감기라도 들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빨리 촬영장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걸음을 재촉하시였다. 자신께서는 눈보라를 맞고 로고를 겪으시면서도 원아들은 바람 한점, 눈 한송이 맞을세라 깊이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

진정 우리 장군님은 원아들의 자애로운 친어버이이시라는 생각으로 일군들의 가슴은 불덩이를 안은듯 달아올랐다.

본사기자 김 성 남

투철한 혁명신념으로 수놓아진 고귀한 한생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탄생일을 맞으며

오늘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탄생 112돐이 되는 날이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항일대전에 나서시여 열혈혁명가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신 김형권동지의 빛나는 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형권삼촌을 생각할 때마다 카륜회의결정을 관철하는 길에서 청춘을 서슴없이 내던진 수많은 전우들을 눈앞에 그려보군 한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이라면 그 관철을 위하여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투쟁하신 견결한 혁명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조선혁명군의 한 무장소조를 이끄시고 국내진출을 단행하신 김형권동지께서 조국땅 파발리에서 원쑤격멸의 총성을 높이 울리신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파발리에서 무장소조는 이 고장 사람들을 악착하게 탄압하는데 미쳐날뛰던 《오빠시》순사부장놈에게 의심을 받게 되였다.

무장소조가 경찰관주재소앞을 지나갈 때 순사부장놈은 일행을 주재소로 불러들이였다. 그리고는 그들의 몸을 수색하려고 하였다.

바로 그때 김형권동지께서는 권총을 뽑아드시고 우리는 네놈들에게 빼앗긴 내 나라를 찾기 위해 싸우는 조선혁명군이다, 네놈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니 용서할수 없다고 추상같이 웨치시며 《오빠시》놈에게 복수의 총탄을 안기시였다.

그날 김형권동지께서는 군중들앞에서 격동적인 반일연설을 하시였다.

김형권동지의 연설은 군중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김형권동지께서 파발리에서 울리신 총성,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시는 조선혁명군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준 혁명의 메아리였다.

파발리를 떠나신 후에도 김형권동지께서는 함경남도의 여러곳에서 눈부신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여 국내인민들의 반일투쟁을 고무하시고 원쑤들을 커다란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으시였다.

이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파발리에서 총소리를 내고 떠난 무장소조일행은 봉오물어귀에서 풍산경찰서 사법계주임이 탄 승합차를 억류하고 그자의 무장을 해제한 다음 주임과 그밖의 승객들에게 반일선전을 하였으며 련이어 리원군 문양리일대에 진출하여 배덕물과 대비위물을 비롯한 여러 지점에서 숯구이로동자들을 상대로 정치사업을 하였다, 어려운 조건이였으나 투쟁은 항상 적극적이였다고 쓰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적들에게 체포되시여 철쇄에 묶이운 몸이 되였을 때에도 투쟁을 멈추지 않으시였다.

일제의 교형리들이 들이대는 중세기적인 모진 고문도 위대한 수령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김형권동지의 변함없는 충실성을 허물수 없었다.

어느날 적들이 들이대는 악착한 고문에 한동안 정신을 잃었던 김형권동지께서는 벽면에 의지하여 일어서시며 네놈들이 우리를 죽일수는 있다, 그러나 밝아오는 태양의 빛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지 못할것이다, 이제 그 빛은 얼었던 조국땅을 녹이고 만물을 소생시킬것이다, 그날은 꼭 오고야 만다, 조선독립 만세! 라고 소리높이 웨치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로 쏠리는 전체 조선인민의 민심을 허물어버리려고 미쳐날뛰는 일제놈들의 비렬한 책동을 추호도 용서치 않으시였다.

감방에서 김형권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다 없어졌다고 쓴 어느 한 신문의 기사를 보게 되시였다.

이때 김형권동지께서는 격하신 어조로 우리는 놈들의 어용신문에 실린 이 기사에 속지 말아야 한다, 김일성장군부대가 다 없어졌다는것은 놈들이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는 지금 대병력으로 자라나 도처에서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있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것이며 반드시 일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것이다고 적들의 교활성과 허위성을 낱낱이 폭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받들어 법정에 나서시여서도 일제의 죄상을 추상같이 단죄하시면서 무장한 강도들과는 무장으로 싸워야 한다고 당당히 대답하신 김형권동지이시였다.

김형권동지께서 이처럼 철쇄고도에서도 원쑤들과 당당히 맞서싸울수 있은 힘은 과연 어디에서 용솟음친것인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절대불변의 신념,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어나가는 티없는 충실성에 원천을 두고 있었다.

하기에 김형권동지께서는 생명의 마지막순간 수감자들에게 김일성은 내 조카이다. 그는 지금 만주에서 큰 혁명부대를 이끌고 왜놈들을 족치고있다. 그 부대가 국내에 쳐들어올 날은 멀지 않았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 싸워야 왜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는 뜻깊은 유언을 남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김형권동지의 숭고한 모습은 오늘도 영원한 태양의 전사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충실성의 산모범을 그대로 이어받아 일편단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림 정 호

애국주의교양을 실속있게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신림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대중의 심장속에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모든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탄부들속에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며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주별, 월별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짜고들어 진행하도록 하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숭고한 애국헌신으로 수놓아진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령도사에 대한 학습을 깊이있게 진행하고 대중속에 들어가 해설선전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들끓는 갱막장에 나간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휴식참을 리용하여 탄부들에게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석탄증산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심금을 울리는 일군들의 호소에 고무된 탄부들은 이날 한사람같이 떨쳐나 하루 석탄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또한 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오늘의 보람찬 총진군길에서 이신작칙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도록 하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진공적인 사상교양사업은 그대로 높은 증산성과로 이어지고있다.

지금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기어이 실현할 불같은 열의에 넘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로동통신원 김 명 순